

# 메타포로서의 종교

—무라카미 하루키 『1Q84』·  
오에 겐자부로 『공중제비』를 중심으로—

심수경\*

(e-mail: skjudyshim@hotmail.com)

---

## 目次

---

1. 시작하며
  2. 움진리교 사건을 통한 문제제기
  3. 종말로서의 혁명과 혁명의 종언
  4. 메타포로서의 종교
    - 4.1. ‘버드나무 저택’이라는 공간
    - 4.2. ‘근거지’ = 유토피아
  5. ‘소리’와 ‘소리 듣는 자’
    - 5.1. 텐고와 아오마메
    - 5.2. 패트론과 가이드
  6. 출구찾기 - 결론에 대신하여
- 

## 1. 시작하며

2009년 5월에 출판된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1Q84』(Book1,2)는 1,2권 합하여 244만부가 팔렸을 정도로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sup>1)</sup>. 2010년 4월에 출

---

\* 서일대학 일본어과 강의전담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2009년 8월에는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어 8개월 만에 100만부 돌파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것은 최단기 밀리언셀러 등급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4월 27일)

한편, 이 작품을 발표하기 직전인 2009년 2월에는 ‘예루살렘상’을 수상하였고, 예루살렘상 수상 기념 연설문에서 말한 ‘벽과 달걀’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즉,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 깨지는 계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계란의 편에 서겠다」고 한 무라카미의 발언에

간된 Book3 또한 5월 집계에 의하면 62만부가 넘게 팔렸다고 한다.

이 작품의 폭발적인 인기의 이유로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엔터테인먼트성의 도입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작품은 아오마메 마사미(靑豆雅美)와 가와나 덴고(川奈天吾)의 이야기가 교대로 이야기되는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오마메는 스포츠 클럽의 실력있는 인스트럭터이나 가정 내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들을 교묘히 살해하는 킬러다. 덴고는 어릴 적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한 남성으로, 현재는 입시학원의 수학강사로 있고 작가 지망생이기도 하다. 이 둘은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으로 증인회 신자였던 부모 때문에 반에서 따돌림을 받던 아오마메를 덴고가 도운 적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오마메는 전학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런 아오마메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1984년이 아닌 1Q84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1Q84의 세계에서 만난 그들은 그 세계를 탈출하게 된다.

Book3에서는 아오마메와 덴고의 이야기에, 선구의 의뢰로 그들을 쫓는 우시카와 도시하루(牛河利治)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추가되며 3인의 이야기가 교대로 진행된다.

이 작품을 해석해 가는 여러 요소들 중 몇 가지를 든다면, ‘선구(さきがけ)’, 후카에리(후카다 에리코, 深田絵里子), 퍼시버——지각하는 자와 리시버——반아들이는 자, 작품 대필, 공기번데기, 리틀 피플, 두 개의 달 등 작품의 수면위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움진리교(オウム眞理教)와의 관련성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컬트집단 ‘선구’일 것이다. 이 ‘선구’라는 컬트종교는 1995년 일본 지하철 사린독가스 사건을 일으킨 움진리교를 염두에 둔 종교로 이야기 된다. 이것은 작가 본인의 언급<sup>2)</sup>에서뿐만 아니라 1997년과 1998년에 이미 움진리교의 문제를 다룬 논픽션 『언더그라운드(アンダーグラウンド)』(1997년3월 講談社. 書き下ろし), 『약속된 장소에서(約束された場所)—underground2』(1998년11월 文藝春秋社)를 출판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3)</sup> 이 작품이 발표되고 곧 이어 나온 작품비평과 연구에서도

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의 관계에 있어 이스라엘이 과연 약자이며, 예루살렘상 수상을 수락한 것이 과연 ‘계란’의 편에 서는 행위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었다.

2) 村上春樹는 「G・オーウェルの未来小説『1984』を土台に、近い過去を小説にしたいと以前から思っていた。もう一つ、オウム眞理教事件がある。」라고 한 신문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 (「『1Q84』への30年」村上春樹氏インタビュー、「読売新聞」2009.6.16~6.18)

3) 『1Q84』의 사이비 종교집단 ‘선구(さきがけ)’는 1995년 지하철 사린독가스 사건을 일으킨 움진리교(オウム眞理教) 등 사이비 종교집단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시마다 히로미에 의하면 ‘선구’는 1953년 교토에서 탄생한 ‘야마기시회’라는 농업공동체와 매우 흡사한 듯하다. 리더라는 인

위에 열거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sup>4)</sup>, 그 중에서 움진리교와 ‘선구’에 대한 언급은 주된 평가의 축을 이룬다.<sup>5)</sup>

그런데 움진리교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은 『1Q84』가 출판되기 10년 전인 1999년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에 의해서도 발표되었다. 『공중제비(宙返り)』(講談社)가 그 작품이다. 『공중제비』는 패트론(師匠)과 가이드(案内人)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각각 구세주와 예언자로 신흥종교를 이끌던 중 과격파 신자들의 테러를 감지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전향Chugaeri’——지금까지 자신들의 이야기는 거짓이었다고 방송을 통해 선언함——한 10년 후 새롭게 종교집단을 구성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패트론이 명상을 통해 이미지로 본 신의 계시를 가이드가 사회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들의 종교적 세계를 구축해 간다. 여기에 노화가인 기즈(木津)와 젊은 청년 이쿠오(育雄)——이쿠오는 기즈와 동성에 관계에 있다——, 댄서(踊り子), 오기청년(荻青年)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공중제비』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종교회귀의 문제를 유토피아 없는 사회의 ‘信’에 대한 강박 때문이라고 말하며, 현대의 종교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정치적인 것」이 결여된 작품이라고 지적한 연구<sup>6)</sup>, 종교와 소설의 아이러니컬한 지가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는 뛰어난 소설로 보는 비평<sup>7)</sup>과 종교 내부로부터의 종교비판의 언설로 보는 연구<sup>8)</sup>, 움진리교 사건의 인물의 내적 세계로부터 『공중제비』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여 오에가 疑似종교의 창조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 헤세(平成)年間の 내셔널리즘의 재생과 해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 연구<sup>9)</sup> 등을 주된 연구로 들 수 있다.

물의 모델은 니지마 아쓰요시(新島淳良)라는 사람으로 니지마는 ‘선구’의 리더와 마찬가지로 야마기시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한다. 시마다에 의하면 ‘선구’는 이 야마기시회와 움진리교를 합쳐 놓은 것이라고 한다.(시마다 히로미, 앞의 논문)

- 4) 대표적으로 加藤典洋의 34인 공저(2007) 『村上春樹『1Q84』をどう読むか』河出書房新社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1Q84』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연정 역(2009)도서출판예문)를 사용한다. 이와 함께, 小野絵里華의 공저(2010) 『1Q84 STUDIES』若草書房 등이 있다.
- 5) 시마다 히로미(島田裕巳) 「『1Q84』는 ‘계란’쪽 소설일까?」, 모리 다쓰야(森達也) 「상대화된 선악-움진리교사건으로부터 14년 걸려 도달한 장소」 앞의 책 『무라카미 하루키『1Q84』어떻게 읽을 것인가』 pp.174~192. 한편, 움진리교와의 연관에서 벗어나 「천황제 시스템의 문제」로 논하는 관점도 있다. (安藤礼二 「왕을 살해한 후에--근대라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작품『1Q84』」 앞의 책 『무라카미 하루키『1Q84』어떻게 읽을 것인가』)
- 6) 西谷修(1999.11) 「世俗化と信仰—『宙返り』を読む」 『新潮』
- 7) 沼野充義(1999) 「魂のことする場所としての小説」 『文学界』Vol.53-10, 논자는 「종교적으로 ‘빠져들기’의 직전에서 소설의 아이러니컬한 지가 빈디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이것은 소설이고, 더욱이 뛰어난 소설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 8) 井口時男(2003.7) 「八〇年代以降—大江健三郎と中上健次(3)」 『新潮』 이구치는 여기에서, 교주들은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에 관한 양의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의 말의 진위를 그들 이외에는 관찰할 수 없는 의심스러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와 오에 겐자부로 의 작품에서 음진리교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순수문학 작가와 대중문학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두 작가에 의해 쓰여진 작품에 음진리교를 통한 ‘종교’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sup>10)</sup>와 오에 겐자부로의 『공중제비』<sup>11)</sup>를 비교하여 논하며, 특히 ‘선구’와 페트론·가이드의 종교집단이라는 공간을 분석한다. 또한, 이들 종교와 68혁명과의 관련성을 논하고, ‘소리’와 ‘소리 듣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무라카미와 오에가 독자들에게 발신하고자 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음진리교 사건을 통한 문제제기

무라카미의 『1Q84』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5년 지하철에 사린 독가스를 살포하여 많은 희생자를 낸 음진리교를 소재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작가인 무라카미 자신 또한 작품 발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작품의 집필 동기에 대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토대로 가까운 과거에 대한 내용을 소설로 쓰고 싶었던 것과 음진리교 사건을 들고 있다. 특히 음진리교 사건에 관해 무라카미는 「범죄자성 인격도 아닌 지극히 보통의 사람이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무거운 죄를 범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가 되어 있다.—그런 달의 이면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공포를 나 자신의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 상황의 의미를 몇 년 동안이나 생각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다.」<sup>12)</sup>고 말한다. 즉 평범한 한 인간을 본인도 모르게

9) 福田和也(2004.7) 「わが戦前—平成年間—の感情、思想、文芸—第二回」 『新潮』

그런데 福田和也는 이전에, 오에의 「전향-chugaeri」 소설이란 것이 겨우 ‘마지막 소설’에 대한 전향일 뿐 그때까지의 오에 작품 계보는 그대로인, 오에의 둔감함을 강화한 작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1999) 「何のための敬虔さか—小説家大江健三郎氏の安全地帯—」 『文学界』 Vol.53-10)

선행연구로는 이 외에도, 현대와 미래를 사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기대를 담은 작품으로 보는 관점(北原耕也(1999.10) 「大江健三郎 『宙返り』」 『民衆文学』) 과 자연과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는 관점(吉沢鶴彦(2000.3) 「魂のこと」 『武蔵野女子大学文学部紀要』 第1号、武蔵野女子大学文学部 紀要編集委員会) 등이 있다.

10) 텍스트는 무라카미 하루키 저, 양윤옥 옮김(2010) 『1Q84』 Book1-3, 문학동네

11) 텍스트는 大江健三郎(2002) 『宙返り』(上·下), 講談社를 사용한다. 또한, 본 논문에 인용된 작품의 번역은 논문필자에 의한다.

12) 무라카미 하루키·오자키 마리코(尾崎真理子) 인터뷰(2009.6.16) 「『1Q84』への30年—村上春樹氏インタビュー(上)」 『読売新聞』

범죄자로 만드는 어떤 요소——이것을 무라카미는 시스템의 문제<sup>13)</sup>라고 말한다——, 를 무라카미는 작품 속에서 규명해 가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움진리교와 「선구」의 관련 자체에만 주목하는 분위기에 대해 2010년 여름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움진리교라는 신흥종교단체를 설정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밝힌다.

내가 문제삼는 것은 더욱 내적인, 정신적인 상황입니다. 움진리교 사건이 야기한, 혹은 그 사건이 초래한 ‘프리(pre)움, 포스트(post)움’의 심적 상황,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숨어 있을 그런 어둠 같은 것, 내가 문제로 삼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sup>14)</sup>

위의 말은 무라카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품에서 추구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가 움진리교라는 켈트종교를 소재의 하나로 삼은 것은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간 내면의 공황(恐慌)에 대해 파헤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에 겐자부로의 『공중제비』는 오에의 ‘마지막 소설’로 이야기되는 『불타오르는 푸른 나무(燃えあがる緑の木)』(『新潮』1993~1995)발표 후 자신의 절필선언에서 ‘전향’하여 발표한 작품이다. 『공중제비』에서 패트론과 가이드가 이끄는 종교는 종교명이 밝혀져 있지 않고,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듯 보이나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다.

이 작품 속에도 움진리교 사건이 소재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움진리교’라는 교단명까지 언급되기도 한다. 오에가 이 작품을 발표하게 된 이유의 하나로 움진리교 사건에서 받은 일종의 충격 혹은 우려를 들 수 있다. 오에는 이 움진리교 사건 자체 뿐 아니라 사건 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단에 머무르는 것을 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 이에 대해 무라카미는 「시스템은,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든 각각의 인간이 각자 내린 결단을 대부분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사하라의 교단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기 위해, 먼저 그들이 각자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혼란시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대귀의’라고 부르지요. 나는 그것을 ‘클로즈드 서킷(Closed circuit)’이라고 부릅니다. 회로를 폐쇄해 버리고는 그곳에서 꺼내주지 않고 윗선에서 판단한 방향으로 쥐처럼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방향 감각을 빼앗기고, 자신을 강제하는 힘이 선인지 악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라고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마쓰이에 마사시 인터뷰(2010.8) 「하루키, 하루키를 말하다」 『문학동네』 p470. 일본어 원문은 村上春樹·松家仁之 「特集 村上春樹ロングインタビュー」 『考える人』新潮社、2010. 여름 호에 실려 있다. 이 인터뷰는 2010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가나가와현의 하코네마치에서 있었다.)

14) 무라카미 하루키·마쓰이에 마사시(2010.8) 앞의 인터뷰 「하루키, 하루키를 말하다」 『문학동네』 p469.

내가 전후 일본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난 종교적인 동기를 가진 사건과 접할 때마다 느낀 것은 거기에는 종교적 상상력이나 문학적 상상력이 모두 쇠퇴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도층에게 고도의 종교적 상상력이 집중된 긴장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도 흔히 그들의 표현은 이완된 것이었습니다. 움진리교 교주의 설교는 그 전형이었습니다. 하부 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긴장감은 단지 교주와 간부들의 정치적 권력과, 젊은 일본인의 폐쇄된 집단이 가지는 특수한 내압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봅니다. (중략)이들 간부들 중에는 과학연구의 기회라는 유혹과 권력욕에 의해 움진리교에 입문한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하부 신자들은 일본의 현대사회를 사는 불안, 불만, 고립감에 싸여 움진리교에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중략) 움진리교 사건은 그와 같은 다수의 하부 신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안과 불만 고립감에 괴로워하는 젊은 이들이 일본 대도시를 메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15)

즉, 오에는 사건 이후에도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움진리교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불안, 고립감, 다시 말해 그들 내면의 공황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정신적 공황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어떤 것도 없고, 특히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그들에게 정신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작품도 쓰여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문학이 그들에게 내면의 위로나 정신적 해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작가로서 자기비판의 의미도 담긴 이 말은 『공중제비』가 노작가로서 젊은이들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 쓰고자 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라카미와 오에 모두 움진리교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부분, 정신적 불안을 보았고, 인간의 그 불안한 내면과 종교에 대해 작품에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종말로서의 혁명과 혁명의 종언

‘선구’와 ‘chugaeri교’<sup>16)</sup>와 68혁명

‘선구’는 매우 폐쇄적인 신흥종교집단으로 외부세계에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선구’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은 ‘선구’리더(후카다 다모쓰 深田保)의 딸인 후카에리가 그 집단에서 도망쳐나와 「공기번데기」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공기번데기」를 매개로 하여 덴고와 후카에리가 만나게 되면서 ‘선구’에 대한 성립배경이 ‘선구’ 리더의 친구인 에비스노(戎野)에 의해

15) 오에(2001) 「宗教的な想像力と文学的想像力」 『鎖国してはならない』 講談社, pp.23-24

16) 여기서는 페트론과 가이드의 종교를 편의상 ‘chugaeri교’라 함.

밝혀진다. 에비스노에 따르면,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대학교수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지지자였던 ‘선구’의 리더는 학생들을 끌어 들여 홍위병 비슷한 과격부대를 학내에 조직하고 대학 데모에 참가한다. 하지만 대학 측의 요청으로 기동대가 학내에 돌입하고 대학에서는 해고된다. 그 후 그는 핵심 멤버 이십 여명을 데리고 ‘다카시마 학원(タカシマ塾)’에 들어가는데, 다카시마 학원은 코뮌 같은 조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이 곳은 뇌사적 인간 즉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버리는 곳으로, 그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카다 다모쓰는 독립하여, 1974년 야마나시현(山梨県)의 산 속에 ‘선구’라는 이름의 코뮌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시 혁명지향의 그룹과 온건파로 갈리게 되고 1976년 혁명지향의 분파 코뮌은 ‘여명(あけぼの)’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여 완전히 분열되게 된다. 그리고 ‘선구’는 1979년 종교법인이 되고 ‘여명’은 1981년 무장봉기의 실패로 괴멸해 버린다.

‘선구’는 에비스노의 설명에 드러나 있듯 초기에는 학생운동에서 파생된 단체로 학생운동의 조직원이었던 인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그들만의 이상향으로의 혁명을 꿈꾸었던 공동체다. 그렇다면 이상을 꿈꾸던 하나의 공동체가 켈트집단으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인가?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가 원래 염두에 두었던 것은 가능성으로서의 혁명이고, 좀더 말하자면 비유로서의 혁명, 가설로서의 혁명이었다. 그러한 반체제적, 파괴적 의지의 발동이 건전한 사회에는 불가결하다고 그는 믿었다. 이른바 건전한 자극제로서. 하지만 그가 이끌고 온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짜 피가 흐르는 실제 혁명이었다. 물론 후카다에게도 책임은 있었다.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피가 끓고 살이 튀는 이야기를 역설해서 그런 목적도 없는 신화를 학생들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던 것이다. (중략)성실한 사람이었고 머리도 좋았다. 학자로서도 우수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나친 달변가여서 자신의 말에 취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Book1.pp.271-272)

위의 인용에서 에비스노가 말한, 비유와 가설로서의 혁명, 그곳에는 오직 ‘달변’—— ‘말’만이 존재한다. 비유와 가설을 위한 혁명의 언어가 자기증식해가며 혁명의 신화를 구축해 가지만, 그 신화의 세계에 인간은 부재한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혁명, 현실과 괴리된 말만이 이상으로서 있는 혁명, 그것은 목적 없는 혁명이며, 목적 없는 혁명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오마메와 우연히 바에서 친구가 된 경찰관 아유미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거 아무래도 수상쩍어. 종교단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인증도 받기는 했는데 종교적인 실체 같은 건 취빨도 없어. 교의적

으로는 탈구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종교적인 이미지를 죄 모아놓고 거기에 뉴에이지 정신, 멋들어진 아카데미즘, 자연회귀와 반자본주의, 오컬티즘이라는 조미료를 적당히 가미했어. 그냥 그거뿐이야. 실체 같은 건 어디에도 없어. (Book1.p.613)

아유미가 말하는 것처럼, ‘선구’에 종교적인 실체 따위는 없다. 다만, 뉴에이지, 아카데미즘, 자연회귀, 반자연주의, 오컬티즘 등등, 땅에서 밭을 췌 가설로서의 ‘소리’만이 난무할 뿐이다. 「진실보다 오히려 아름다운 가설」 이것이 바로 혁명이다.

실제로 작품에서 개방적인 코뮌이었던 ‘선구’가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한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선구’ 내부에 리더를 통해 ‘소리’——말——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선구’의 리더가 ‘소리’를 듣는 자가 된 후 점차 시력을 상실해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부를 향한 시선은 차단되어 가고 내부의 ‘소리’만이 고조되어 간다. 집단 내부에서 ‘소리’로서의 위상이 절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절대화되어 갈수록 <인간>은 상실된 채 ‘소리’만이 분리되어 홀로 걸어가게 된다. 이것을 관점을 달리해, 이쪽 세계로의 통로는 차단되었지만 저쪽 세계로의 통로는 열린, 열린 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쪽 세계로의 통로는 저쪽 세계의 의지에 의해서만 열리는 일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열린 공동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리’는 언제나 자신이 임하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찾아올 뿐이고, 그곳에 소통이란 찾아볼 수 없다.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 신체성을 지닌 세계에 신체성을 외면한, 즉 인간을 배제한 반자연주의——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가 절대화한 공간, 그것이 바로 ‘선구’이다.

한편, 『1Q84』에서의 ‘선구’는 6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작품 내 에비스노는 「내가 감히 평을 하자면,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 인간의 머리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회로를 제거해버리는 곳이지. 조지 오웰이 소설에 썼던 것과 흡사한 세계야」 (Book1.p.263)라고 다카시마 학원을 비판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선구’의 리더를 비판한다.

그는 더 이상 혁명의 가능성이나 로맨스를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어. 그렇다고 그걸 전면 부정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 혁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 (Book1.p.273)

‘다카시마 학원’ ‘선구’ ‘여명’ 모두 자신들의 사상——사상은 언어에 의해 체계화되고 교육된다——, 을 위한 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인간을 컨트롤하고 지배해 가는 집단이라는 특성과, 혁명을 믿지 않는 자의 혁명 역설이라는 모순을 자기 내부에 안은 채 이론만이 시스템화되어 인간을 지배하는 조직이 궁극에는 <인간>이 상실된 집단으로 컬트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 일본의 60년대 말-70년대 초 학생운동 집단에 내재해 있는 모순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선구’리더의, 혁명을 믿지 않는 자의 혁명은 혁명이라는 신에 대한 ‘신앙’없는 자의 종교, 다시 말하면 흡사 혁명이라는 이름의 <신이 부재한 교회>이며, 이 때 이것은 오에의 『공중제비』에 있어서의 <신이 부재하는 교회>와 오버랩되게 된다.

『공중제비』에서는 성서의 「요나서」가 등장하며 요나의 혁명가적 성향이 자주 언급된다. 이와 함께 이 작품에는 ‘민청’<sup>17)</sup>과 ‘대학분쟁’이라는 말이 언급되며 1968년의 혁명을 환기시킨다. 특히 종말을 앞당기고자 무장봉기를 준비했던 「技師團」은 혁명전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며 1972년 2월 연합적군과<sup>18)</sup>의 아사마(淺間) 산장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그들의 과격 노선은 혁명——과거의 종결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을 주장하는 연합적군과의 혁명론<sup>19)</sup>을 연상시킨다. 그렇다면 혁명을 통한 혁명 후(post혁명)는 도래하는가? 패트론과 가이드의 종교가 주장하는 세계의 종말과 회개에 있어서 「일찍이 가이드도 나도 우리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上p.342)라는 패트론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희구하는 혁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이다. 죽음을 통한 과거의 종

17) 민청(民靑)은 일본민주청년동맹이라는 공산당 소속의 학생자치단체로, 1960년대 후반 학생운동이 치열했을 때, 신좌익계열과는 대립의 관계에 있었다

(日本民主青年同盟home page : <http://www.dylj.or.jp/> 위키백과 : [ja.wikipedia.org/wiki/日本民主青年同盟](http://ja.wikipedia.org/wiki/日本民主青年同盟))

18) 1969년 5월, 共產主義同盟 (プント) 에서 13인이 「第一次赤軍派」를 결성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武装蜂起 혁명을 목표로 한 것이 『赤軍派』이다. 赤軍派최고간부의장인 塩見孝는 1970년9월, 「赤軍派大政治大会」를 개최하고 정치위기의 객관적 성숙·前段階蜂起·세계혁명전쟁을 내걸었다. 여기에, 일본공산당에서 제명당한 親中당원 등이 모여 만든 「京浜安保闘争」가 결합하여 1971년 「連合赤軍」을 결성한다. (高木正幸(1985) 『細分化と過激化』 『全学連と全共闘』 講談社, pp.135-150)

19) 연합적군과의 기관지 『銃火』의 「世界各地の武装プロレタリア人民の闘争に学びつつ、世界革命戦争の重要な一翼として、日本革命戦争を發展させることを確認した」라는 기술처럼 그들은 그때까지 의거해 왔던 분토(プント)공산주의 자동맹)주의를 혁명적 패배주의로 규정하고 무장혁명투쟁을 주장했다.(高木正幸, 앞의 책, p136)

한편, 스가 히데미(桂秀美)는 적군과에게 있어 68혁명이 세계혁명으로의 과도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그곳에 이르는 20세기의 ‘객관적’사태가 러시아혁명으로 시작되어, 쿠바혁명, 베트남혁명 등등으로 이어지는 ‘전쟁과 혁명의 세기’의 현재적 귀추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3) 「第11章戦争機械/陣地戦/コミュニケーション」 『革命的な、あまりに革命的な—1968年の革命—史論』 作品社, pp.275-276)

결. 그 후 그들의 이상향은 도래하지 않는다. 죽음을 통한 혁명 후의 세계는 ‘피가 흐르는’ 세계가 아니다. 그곳에는 다만 심판이 존재할 뿐이다.

과거역사의 종결과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한 종말로서의 혁명, 그 혁명의 끝에는 혁명의 종언만이 존재할 뿐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꿈꿀 수는 없다.

『1Q84』에서 남성의 고향 걷어차기의 프로인 아오마메가 한 남성에게 고향을 힘껏 걷어차이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묻었을 때 그 남성이 말한 「이제 곧 세계가 끝나버리는」 것 같은 아픔이며, 그런 세계의 종말에는 「그저 깊은 무력감밖에 없어. 암울하고 구원이라고는 없지」(Book1,p.277)라고 하는 그런 종말. 종말로서의 혁명, 그것은 목시록적 혁명이며 그곳에 그들이 회구하는 영혼의 안식과 구원은 없다.

## 4. 메타포로서의 종교

### 4.1 ‘버드나무 저택’이라는 공간

달이 두 개 떠 있는 세계, 이것은 아오마메가 1Q84로 부르는 공간이고, 덴고가 「공기 번데기」로 부르는 세계이며, 후카에리와 덴고에 의해 쓰여진 소설공간이다. 이곳은 입구는 있으나 출구는 보이지 않는 닫힌 공간이다.

그런데 「공기 번데기」안 에는 또 다른 폐쇄집단이 존재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컬트집단 ‘선구’에 이은 또 하나는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하는(DV) 남성들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처단하는 ‘버드나무 저택(柳屋敷)’이 그것이다. 아오마메와 노부인, 다마루(タマル)라는 인물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자들을 이른바 사회악이라는 이유로 살해해 간다. ‘선구’의 리더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들의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게 되고 결국 아오마메에 의해 살해된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정당한가?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 ‘선구’의 리더에게 성폭행당한 어린 소녀(쓰바사)——‘선구’리더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종교적 행위였다——를 돌보던 노부인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의사를 만류한다. 「이 아이가 당한 일은 명백히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고 사회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거운 형사죄로 처벌하는 게 마땅한 비열한 범죄지요」라고 하면서도 「이 아이는 거의 말을 못해요. (중략) 혹시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일 경찰 손에 이 아이를 넘긴다면 그대로 부모에게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높아요.」(Book1,p.511)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통해

처리한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믿으며 자신의 방식으로 이른바 사회악 처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노부인의 말은, 옴진리교의 폭력 정당화를 환기시킨다——옴 진리교에서 이것을 포아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오마메의 지금까지의 개인사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의 면에 있어서도 프로조직에 뒤지지 않는데, 이에 대해 노부인 스스로도 「신이랄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즉, 노부인은 자신이 신을 능가하는 어떤 존재, 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의의 심판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가공할 만한 종교다. 이것은 ‘선구’가 가진 조직력과 행동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노부인은 단순한 개인의 범위를 넘어 ‘선구’와 유사한, 경우에 따라서는 ‘선구’를 능가하는 종교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선구’의 리더가 아오마메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버드나무 저택’의 종교적 성격이 보다 명확히 부상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실증 가능한 진실 따위는 원하지 않아. 진실이란 대개의 경우, 자네가 말했듯이 강한 아픔이 따르는 것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아픔이 따르는 진실 따윈 원치 않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미있게 느끼게 해주는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이야기야. 그러니 종교가 성립되는 거지. (Book2.p.276)

‘진실보다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미있게 느끼게 해 주는 기분 좋은 이야기’, 노부인이 빠져있는 종교세계는——그러나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진실보다 오히려 아름다운 가설」의 세계인 것이다.

때문에 아오마메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일종의 광기에 빠져 있다.(중략)그것은 광기라기보다는 광기와 비슷한 어떤 것이었다. 올바른 편견,이라고 하는 게 가까운 표현일지도 모른다.」(Book1.p.467)라는 생각은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해도 노부인의 행위신념이 종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노부인의,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일」이고 선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신념, ‘증인회’에 대해 「성서 원문을 끝이끝대로 해석하는 교리를 내세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술까지 부정하는 종교는 컬트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며, 「일정한 선을 뛰어넘은 도그마의 남용」(Book1. p.515)이라고 비판하며 컬트종교라고 선언하기를 꺼리지 않는 노부인의 모습에서 또다른 컬트집단의 교주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말의 의심도 없이 살인하는 집단, ‘버드나무 저택’은 또 하나의 컬트집단의 탄생이다.

노부인은 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일까? 아오마메는 그런 노부인의 태도에서 「단순한 분노와 혐오감을 뛰어넘은 무언가」,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하고 자그마한, 이름을 갖지 않은

핵 같은 것」을 느낀다. 이것이 그녀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근간, 동기다. 그 동기에는 <상처>가 존재한다. 노부인의 결혼한 딸은 남편의 폭력으로 죽은 피해자다. 노부인이 사회악 남성을 처단하게 되는 데에는 남편에게 폭행당해 죽은 자신의 딸의 죽음——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버드나무 저택’의 혁명은 그들에게 불필요한(그들을 괴롭히는) ‘남성의 고향을 걷어차는’(Book1.p.277) 혁명인 것이다. 그들은 그 혁명의 안전한 완성을 위해 ‘적당한 남자’와 섹스를 즐길 뿐이다. ‘버드나무 저택’에 호모인 다마루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1Q84의 공간 안에서 폐쇄적 집단<sup>20)</sup>을 이루며 사는 인물들은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선구’로 모여든 그들은 대학분쟁에 좌절된 좌익이나 평범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 새로운 정신생활을 찾는 자들이고, ‘버드나무 저택’의 그들 역시 사랑하는 딸을 폭력으로 잃은 어머니이자 딸이고 친구다. 그들의 종교 뒤에는 이들의 상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상처입은 영혼의 집합체, 그것이 바로 1Q84의 공간이다.

#### 4.2. ‘근거지’ = 유토피아

『공중제비』에서 패트론은 가이드의 죽음 후, 과거 패트론과 가이드를 따르던 일단의 무리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코쿠의 한 마을로 이동하게 된다. 그곳에 ‘새로운 사람’의 교회를 세우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려 하는데, 이곳은 기이(ギイ)를 중심으로 하는 ‘동자의 반딧불(童子の螢)’이라는 청년집단이 독립된 공간, 즉 중심과는 다른 독립적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下p.185)——기이는 작품 말미에서 ‘새로운 사람’의 교회를 잇게 된다——. 기이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집단은 마을의 전승으로 이어지는 ‘Kowasuhito(壊す人: ‘파괴자’의 뜻)<sup>21)</sup>의 마을의 창건신화를 그

20) 폐쇄적 1Q84의 세계는 21세기 현실적 가상공간인 인터넷 공간을 연상시킨다. 인터넷의 공간은 손쉽게,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인터넷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극히 폐쇄적인 공간이다. 또한, 익명의 정보 제공자에 의해 조종되는 통제의 공간임과 동시에 개인의 생활이 감시되는 부자유의 공간이다.

한편, 인터넷 공간의 주된 거주자들은 가상의 공간에서는 강하나——활발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나, 현실의 공간에서의 소통에는 극히 취약한——소통의 방법에 서툰, 불통의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자유로운 공간이나, 얼굴을 대면한 소통에는 어려운 불통의 집단이다.) 세대 면에서는 주로 10~20대의 젊은 층이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동세대와의 소통에는 적극적이거나 가상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 수직으로 소통하기를 어려워하고 때로는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집단이다. 때문에 이들은 이들의 속성을 숙지한 보이지 않는 손——리를 피플——에 의해 철저히 컨트롤당하는(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 것이다.

21) 일본어 원문은 ‘壊す人’로 ‘파괴자’라는 뜻이나 고유명사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호칭이므로 일본어 원음인 ‘Kowasuhito’로 표기한다.

중심에 두고 중심과는 다른 그들 마을만의 공동체를 구성하려 한다. 다음은 기이의 말이다.

우리는 이 숲 속에서 「Kowasuhito」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거지운동은 마을에서의 생산과 젊은 사람들의 생활태도 면에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면에서 「Kowasuhito」는 신이었기 때문에 「Kowasuhito」에 대한 신앙으로 통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下p.158)

기이의 말에 의하면 마을공동체에게 Kowasuhito는 ‘신’이다.<sup>22)</sup> Kowasuhito는 『동시대 게임(同時代ゲーム)』(新潮社,1979.11)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Kowasuhito는 막번체제 확립 후 시코쿠의 작은 번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와 신천지를 개척한다. 『동시대 게임』에서의 Kowasuhito에 의한 「마을」=「국가」=「소우주」를 환기시키며 그 연장선에 있는 『공중제비』에서의 마을공동체 특히 ‘동자의 반딧불’은, 토지에 대한 신앙(土地の力、場所の力)(下p.249)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지——메카——에 대한 신앙을 환기시키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Kowasuhito가 추방된 사람들의 리더이며, 그 공동체가 ‘대일본제국’과 대항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혁명을 갈망하는 『1Q84』의 ‘선구’ 및 그 리더의 특징과 유사하다. 더욱이 ‘선구’도 자급자족의 농업공동체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중제비』에서의 마을공동체와 상통한다.

그런데 이러한 Kowasuhito를 둘러싼 마을의 창건 ‘신화’ 또한 말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周縁)의 작은 마을이 ‘말’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공동체=소우주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며, 신화→말→기원으로서의 기능이라는 면에서도 마을공동체는 『1Q84』의 ‘선구’와 같은 종교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이들은 단적으로 말해 ‘말’을 중심으로 성립된 공동체로 자신들의 ‘근거지’=유토피아 건설이라는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근거지’는 그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장소로 인식된다. 하지만, 근거지라는 코윈의 건설이 곧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며, 이것은 『공중제비』 이전에 발표된 근거지 건설을 그린 작품, 예를 들면 『불타오르는 푸른 나무』 3부작에서 근거지 건설을 주도한 기이가 살해당하고 근거지 건설이 도중에 중단·해체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공중제비』에서는 『불타오르는 푸른

22) 신천지 개척 도중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었지만, Kowasuhito가 화약을 이용하여 그 바위 덩어리를 파괴하고, 대화상을 입은 Kowasuhito는 파괴 후의 대홍수와 악취 속에서 치유되었다는 내용은 Kowasuhito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자 즉 신의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나무』에서의 공동체의 역사를 이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품 후반에 ‘새로운 사람’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상향에 대한 혁명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23)

덧붙여, 이러한 코핀이 유행한 것은 1960년대로 서구의 젊은이들에 의한 혁명적 분위기가 고조된 때이다. 『1Q84』의 ‘선구’와 함께 『공중제비』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60년대 미국의 히피문화 등 대항문화의 젊은이들의 공동체를 연상시킨다. 또한 패트론과 가이드가 몰입해 갔던 ‘신비주의’가 유행한 것이 1970년대로 1960년대 유행했던 카운터 컬처(counter culture)의 연장선에 있고<sup>24)</sup>, 그 점에서 ‘선구’와 시코쿠의 작은 마을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5)

## 5. ‘소리’와 ‘소리 듣는 자’

### 5.1. 덴고와 아오마메

아오마메는 뜻하지 않게 1984년에서 1Q84의 공간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점차 자신을 1Q84의 공간으로 이끈 것이 덴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덴고가 쓰기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세계에 아오마메가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아오마메는 덴고의 「공기 번데기」를 읽는다. 아오마메를 자신의 세계로 이끈 덴고의 글쓰기 행위는 창조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딸인 후카다 에리코가 「공기 번데기」를 발표하고 소리는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 때 후카다씨는 스스로의 존재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Book3.p.438)

23) ‘새로운 사람’의 교회가 이전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신을 부정한다는 데에 있다. 마지막 장에서 논한다.

24) 패트론과 가이드는 50세로 68혁명 즈음에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충분히 예측된다.

25) 아오마메는 우연히 한밤중의 TV 명화 프로그램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영화를 본다. 아오마메는 이 영화를 「1960년 전후에 제작된 미국영화」라고 보고 있는데, 이 영화는 1959년에 제작된 스탠리 크레이머 감독의 SF 명작으로 핵전쟁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원제는 ‘On The Beach’. 아오마메는 「대량의 핵미사일이 날치 떼처럼 대륙 간을 성대히 오가는 바람에 지구는 어이없이 괴멸하고,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류는 죽어간다.(중략)인류의 전멸은 이제 어떻게든 피할 도리가 없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제 곧 들이닥칠 종말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생 최후의 나날들을 살아간다.」(Book1.p.278)고 소개하고 있다.

덴고의 글쓰기를 통해 「공기 번데기」가 출간되자 ‘소리’가 리더에게 말하기를 멈춘 것은 덴고의 글쓰기는 ‘소리’의 현재(懸在)이며, 이것은 곧 창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덴고가 후카 에리의 고스트 라이터로서 「공기 번데기」를 집필하여 발표한 후 ‘선구’의 리더에게 ‘소리’는 그 ‘소리’를 멈추게 되는 것이다. ‘소리’는 ‘말’이며 그것은 신을 의미함과 동시에 창조——혼돈에 질서 부여——를 의미한다.<sup>26)</sup> 따라서 덴고가 글쓰기를 통해 세계를 창조했을 때 ‘소리’는 정지될 수밖에 없다. 덴고의 소리——글쓰기——에 이끌려 「공기 번데기(1Q84의 세계)」의 공간으로 들어온 아오마메는 ‘소리’를 ‘듣는 자’이고, 「공기 번데기」 읽기를 통해 덴고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자로 존재한다.

자기 전에 『공기 번데기』를 반드시 몇 페이지 읽는다. 그것은 덴고가 쓴 문장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가 1Q84를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Book3,p.109)

그리고 보면 덴고가 쓴——후카에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공기번데기」는 처음부터 아오마메를 독자로 쓰여진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덴고는 고스트 라이터로서 후카에리가 쓴 「공기번데기」를 고쳐쓰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글을 고쳐나가면서 덴고가 새삼 실감한 것은, 후카에리가 무슨 문학작품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쓴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번데기」를 이루고 있는 문장은 결코 나 혼자만 알면 된다는 그런 문장은 아니었다. (중략) 그것은 아무리 봐도 다른 누군가가 손에 들고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써내려간 문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기번데기」는 문학작품을 목적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문장이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른 누군가라는 건 아무래도 근대문학이 원칙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는 다른 듯했다. 읽으면서 덴고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종류의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걸까.

(Book1,pp.149-150)

퍼시버로서의 후카에리는 아오마메와 덴고가 1Q84의 세계에서 만나게 될 것을 인지하고 아오마메라는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후카에리에 의해 소재를 제공받고——‘선구’리더의 말을 빌리면, 그의 내면에 향해로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고—— 덴고는 그것을 고쳐쓰기하면서 아오마

26) 대표적으로 『성서』에서의 ‘야훼 신’이 있으며, 三島由起夫 『英靈の聲』(初出「文芸」1967·6)역시 신은 소리(聲)로서 임하고 있다.

메에게 읽히는 작품이 된 것이다. 또한 ‘선구’의 리더는 아오마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기 번데기」를 실제로 집필한 것은 덴고야.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어. 그는 거기에서, 달이 두 개가 있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어. 에리코라는 뛰어난 퍼시버가 그의 내면에 항체로서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 것이지. 덴고는 리시버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모양이야. 자네를 데리고 온 것도, 말을 바꾸자면 그 기차에 자네를 타게 한 것도 그의 그런 능력인지도 모르지. (Book2,p.336)

글쓰기 하는 덴고와 읽는——듣는——아오마메의 관계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이기도 하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창조한 『1Q84』를, 독자는 읽기 행위를 통해 그가 창조한 세계로 빠져 들어가 그 속에서 작가의 소리를 계속 해서 들으며 작품 안에서 ‘이쪽 세계’가 아닌 ‘저쪽 세계’에서 작가와 동거하게 되는 것이다.

## 5.2. 패트론과 가이드

그런데 후카에리와 덴고라는 2인 1조의 글쓰기 작업은 『공중제비』에 있어서 패트론과 가이드의 작업과 유사하다. 『공중제비』에서는 패트론이 구세주로, 가이드가 예언자로 등장하며, 명상을 통해 신의 계시를 보는 패트론과, 패트론이 명상 속에서 이미지를 통해 본 신의 계시를 사회의 언어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하나의 짝으로 등장한다.<sup>27)</sup> 패트론이 명상을 통해 본 신의 계시를 언어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가 다시 깊은 명상을 해 저쪽 세계로 가도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은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처럼 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이드가 듣고 의미가 있는 문맥으로 정렬해 주지. 그렇게 해서 비로소 내 말은 이쪽 세계의 말이 되는 거지. 그 절차 없이는 내 말이 의미를 갖는 일은 없어. 내가 헛소리처럼 지껄이는 것은 고열로 의식이 혼미한 것과 같아서 그대로는 무엇을 이야기했

27) 여기서는 패트론이 구세주, 가이드가 예언자로 등장하지만, 패트론이 명상 속에서 보는 신의 계시는 가이드에 의해 인도된, 또는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패트론은 자신들의 책을 통한 구도행위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와 가이드가 젊었을 때 나이에서 오는 불안과, 역시 나이에서 오는 에너지에 의해 신비주의적인 분야에 주목하고 열심히 책을 읽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와 나는 독서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요. 나 혼자서는 엄두를 못 내는 책을 그가 읽고 나에게 흥미가 있을 만한 부분에 줄을 치거나 붉은 연필로 표시를 하거나 해서 건네줍니다. 물론 그곳만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는 책 전체를 읽는 것은 어려워요. 가이드가 주목시키기 위해 표시를 한 페이지가 있는 한 그 장은 읽는다, 그렇게 해서 모르면 앞장을 읽는 식입니다. 가이드는 밑줄과는 별도로 참조해야 할 장을 연필로 적어 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上pp.270-271)

는지 생각해 낼 수가 없어. 기억에 있는 것은 의미의 열매가 들어있던 껍질에 불과해. (上.p.31)

위의 인용부의, 패트론이 본 것(경험한 것)을 헛소리처럼 말하는 내용을 가이드가 의미 있는 문맥으로 고쳐주는 과정<sup>28)</sup>은 후카에리라는, 본 것(경험한 것)을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는 난독증을 가진 소녀가 이야기한 것을 덴고가 논리적인 문맥으로 고쳐주는——이 사이에는 아자미(アザミ)라는 친구가 있지만, 아직 미성년으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다. 즉, 아자미 또한 언어의 전문가가 아니다.——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단, 『공중제비』에서의 패트론과 가이드의 언어화 작업은 후카에리와 덴고의 그것과는 달리 아오마메와 같은 특징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대중을 독자로 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들 내부에서만 통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중제비』는 닫혀 있는 작품이다. 즉, 『공중제비』에 대중성은 결여되어 있다. 「공기 번데기」가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무라카미는 많은 독자들에게 호응받는 대중성 있는 작가다. 『공중제비』의 마지막 장에도 그들의 「동시대사」를 집필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그들의 「동시대사」에 많은 독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1Q84』와 『공중제비』에 등장하는 「공기번데기」와 「동시대사」라는 두 작품이 오에가 대중성 확보라는 면에서 무라카미에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도 이어지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다. <sup>29)</sup>

## 6. 출구찾기-결론에 대신하여

『1Q84』의 여주인공 아오마메는 무언가를 계기로 하여 1984년의 세계에서 조금 어긋난 다른 세계로 들어온다. 그것을 아오마메는 ‘1Q84’로 부르고 있다. ‘Q’는 Question mark의 Q로, 아오마메는 1984년과 1Q84년을 페럴렐 월드

28) 패트론과 가이드의 종교도 ‘선구’와 같이 외부와는 단절되며 다른 쪽 세계가 열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구’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 역시 열린 공동체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 쪽 세계와의 소통은 패트론과 가이드의 <번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번역의 진위여부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9) 오에는 이와 관련한 일화를 언급한다.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懐かしい年への手紙)」(1987)가 나온 직후, 그 때 오키나와였다고 기억합니다만, 지방에 가 있었고, 그 책이 신경이 쓰여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큰 서점에 가 보았죠. 그런데 평평하게 한 면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붉은 색과 초록색으로 된 예쁜 정장본의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이었고, 내 책은 저 속에서 부끄러운 듯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大江健三郎·尾崎真理子 インタビュー 「第5章」 앞의 책 『大江健三郎 作家自身を語る』 p.194)

(Parallel World)로 생각한다.

하지만, 켈트집단 ‘선구’의 리더는 그녀가 생각하는 패럴렐 월드를 부정한다. 「이곳은 패럴렐 월드 같은 게 아니야. 저쪽에 1984년이 있고, 이쪽으로 갈라진 가지에 1Q84년이 있고, 그것이 병렬적으로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1984년은 이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차네에게도, 나에게도. 지금은 1Q84년이라는 시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Book2.p.321)라고 말하며 아오마메가 1Q84라고 부르는 이 세계에 찾아오는 죽음은 진짜 죽음이며, 이곳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선구’ 리더의 말에도 아오마메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분명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고 있으며, 리더는 다시 “그 세계는 이미 없어”라고 아오마메의 말을 부정한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1984와 1Q84는 동시에 존재하는가? ‘선구’리더의 말대로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오마메가 생각하는 1Q84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한가? 또는 두 세계가 공존한다면 탈출은 가능한가? 폐쇄된 여러 공간들이 미로처럼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여기에서 아오마메는 탈출할 수 있을까? 2010년 4월에 출판된 Book3에서는 생각을 바꾸어 자살을 멈춘 아오마메가 결국 덴고를 찾고 그와 함께 1Q84의 세계를 빠져 나온다.

그런데 아오마메의 탈출의 가능성은 조금은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오마메는 경찰관인 아유미에게 말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인생에는 구원이 있어.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해도. (Book1.p.408)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만난다. ‘소리’——덴고의 글쓰기——와 <인간>——아오마메——이 연결되었을 때 그 ‘소리’는 인간과 함께 호흡하며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덴고와 아오마메가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1Q84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작품의 끝부분에서 덴고와 탈출하는 아오마메는 ‘선구’리더의 말을 떠올린다. 「여기는 구경거리의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꾸며낸 것.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모두 다 진짜가 될 거야」라는 말. 사랑과 신뢰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조금은 식상한 말이 실은 소박한 진리일 것이라는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하게 한다.

『공중제비』에서는 기이와 이쿠오가 신을 부정하며 신이 부재하는 교회인 ‘새로운 사람’의 교회를 운영해 가는 장면에서 작품은 끝난다. 이것은 오에의 「결국 자신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과 자신이 연결된다는 그런 신비적인 것, 그리고 네오플라토니즘적인 곳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40대, 50대를

지나면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 후에는 계속 신은 저 멀리, 인간과 무관계로 있다, 는 시몬느 베이유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sup>30)</sup>라는 말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 내의 오기청년(荻靑年)의 입을 통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건 인류의 패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도 별 수 없지 않을까? 이 혹성의 인간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上p.175)라고 이야기된다. 어떤 면에서 신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라고도 보이는 이 말은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신을 인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를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과거 신의 ‘소리’ 듣기에 집착했던 이쿠오가 더 이상 신의 ‘소리’ 듣기를 단념하고 ‘새로운 사람’의 교회의 운영을 맡게 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공중제비』가 인간과 멀리 있는 신에 대한 구도과정의 비인간성,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결국에는 신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정신활동에 의지하려 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제를 말한 휴머니즘 소설이라면, 『1Q84』는 처음부터 신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한 가설을 과감히 버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과 신뢰로 맞잡은 손에 그 구원을 말하는 휴머니즘 소설인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1Q84』에서의 각각의 집단이 모두 상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중제비』에서는 각각의 영혼의 상처를 통한 공동체 성립의 과정보다는 종교에서의 ‘신’의 의미와 신과 인간의 관계가 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1Q84』에서는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를, 『공중제비』에서는 신을 배제한 교회를 통해 인간 영혼의 회복을 그렸다. 즉, 두 작품에는 구원의 길에 신이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작품은 이른바 대중문학 작가로 일컬어지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순수문학의 대표작가로도 볼 수 있는 오에 겐자부로라는 조금 다른 두 작가가 인간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통찰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 탈출하기 위해 쓴 인간통찰의 휴머니즘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0) 大江健三郎·聞き手 尾崎眞理子, 같은 책, pp.224-225

## 【参考文献】

- 加藤典洋외 34인 공저, 박연정 역(2009) 『무라카미 하루키 『1Q84』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도서출판예문
- 무라카미 하루키 저, 양윤옥 옮김(2010) 『1Q84』 Book1-3, 문학동네
- 무라카미 하루키·마쓰이에 마사시 인터뷰(2010.8 여름호) 「하루키, 하루키를 말하다」 『문학동네』 p.470.
- 『서울신문』 2009.4.27
- 井口時男(2003.7) 「八〇年代以降—大江健三郎と中上健次(3)」 『新潮』
- 大江健三郎(2001) 『鎖国してはならない』 講談社, pp.23-24
- 大江健三郎(1979) 『同時代ゲーム』 新潮社
- 大江健三郎(1999) 『燃えあがる緑の木』 3部作, 新潮社
- 大江健三郎(2002) 『宙返り』 (上·下), 講談社
- 大江健三郎·尾崎真理子(2007) 인터뷰 『大江健三郎 作家自身を語る』 pp.194
- 小野絵里華외 공저(2010) 『1 Q84 STUDIES』 若草書房
- 北原耕也(1999.10) 「大江健三郎 『宙返り』」 『民衆文学』
- 桂秀実(2003) 『革命的な、あまりに革命的な—「1968年の革命」史論』 作品社, pp.275-276
- 高木正幸(1985) 『全学連と全共闘』 講談社
- 西谷修(1999.11) 「世俗化と信仰—『宙返り』を読む」 『新潮』
- 沼野充義(1999) 「魂のことをする場所としての小説」 『文学界』 Vol.53-10
- 福田和也(1999) 「何のための敬虔さか—小説家大江健三郎氏の安全地帯—」 『文学界』 Vol.53-10
- 福田和也(2004.7) 「わが戦前—平成年間の感情、思想、文芸—第二回」 『新潮』
- 村上春樹·尾崎真理子(2009.6.16.) 「『1Q84』 への30年—村上春樹氏 인터뷰(上)」 『読売新聞』
- 吉沢鶴彦(2003.3) 『武蔵野女子大学文学部紀要』 第1号、武蔵野女子大学文学部紀要編集委員会
- 『読売新聞』 『1 Q84』 への30年」村上春樹氏インタビュー」 2009,6.16~6.18

## 要 旨

本稿においては、オーム真理教事件を素材とする村上春樹『1Q84』と大江健三郎『宙返り』を論じた。10年という時間において発表された『1Q84』と『宙返り』においてオーム真理教をモチーフにしているカルト宗教がどのように描かれているかを分析し、それぞれの宗教的空間の特徴を論じた。また、これらの宗教と68革命との関連性を論じ、それまでの歴史の終焉と同時に新しい歴史の創造の意味を持つ革命は、実は革命の終焉でしかなかったことを明確にした。そして、『1Q84』の柳屋敷の宗教的要素と『宙返り』における根拠地運動=ユートピア建設の宗教性を論じた。「声」と「声を聞くもの」では天吾と青豆、師匠と案内人の関係について考察した。

村上と大江はオーム真理教事件から人間内面の暗い部分、精神的恐慌などを見ており、人間の内面にある不安を究明しようとしたと言える。村上の『1Q84』における青豆と天吾は、愛と信頼によってその不安——1Q84の世界——から脱出できた。大江の『宙返り』では、これ以上神を期待せず、それまでの求道者としての生き方を捨て、人間自らの力によって自らを救おうとする人間が描かれている。

それぞれ大衆作家と純文学作家と言われる二人の作家の作品は、共に人間同士の愛と信頼、ヒューマニズムを発信してい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

キーワード：オーム真理教、革命、共同体、カルト、神、人間、愛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1. 3. 19

2차 심사 : 2011. 4. 2